

FEEL VIENNA

“진짜” 비엔나를 알고 싶다면 비엔나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혼한 관광지 대신 비엔나 로컬들의 단골 명소에서 비엔나의 진짜 특색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엔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비엔나 특유의 말씨와 기풍은 국제적인 도시다운 멋진 길모습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역사의 산 증인으로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비엔나의 기풍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2019년, 가장 비엔나다운 장소들이 조명을 받습니다. 누스베르크(Nussberg)에 있는 슈바르체



스 카메엘(Schwarzes Kameel)은 그 중 한 곳이며, 비엔나 사람들은 포도주 제조의 명가인 비닝어(Wieninger) 가문이 운영하는 이 와인 주점에서 도시의 장관을 감상하곤 하지요. 바로크 양식의 프란체스코 성당(Franciscan Church)에서는 1642년 요하네스 에벤바우어

(Johannes Ebenbauer)가 제작한 비엔나 최고(最古)의 뵘케를(Wöckherl) 오르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비엔나 국립 음대(MDW,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에서는 차세대 음악가들의 멋진 연주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70년 전 영화 <제3의 사나이(The Third Man)>는 비엔나의 하수도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곳에 가면 지금도 주인공 해리 라임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 게오르크 폼(Georg Popp)과 베레나 폼-하크너(Vereina Popp-Hackner)가 촬영한 동물 사진들을 통해서 비엔나의 자연과 생생히 마주할 수 있지요. 어느 멋진 비디머이어(Biedermeier) 양식 건물로 들어가면 유명한 야로진스키-보고양(Jarosinski & Vaugion)의 멋진 공예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9년 비엔나에는 볼거리가 풍성해집니다.

매일 밤 비엔나에서는 라이브 클래식 연주가 흘러나와 1만 여 음악 애호가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오직 비엔나에서만 가능한 경험이지요. 모차르트, 말러, 하이든, 베토벤, 요한 슈트라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작곡가들이 이 곳 비엔나에서 활동했습니다.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비엔나 소년합창단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합니다.

HEAR VIENNA



비엔나는 세계 음악의 수도입니다. 해마다 90여 개국의 수백만 시청자들은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 연주에 감동 받습니다. 비엔나 소년합창단은 아우가르텐(Augarten)의 전용 공연장 무트(MuTh)에서 전 세계에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세계적 명성의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은 매일 저녁 다른 프로그램 선보이며 해마다 300회에 가까운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안 데르 빈 극장(Theater an der Wien) 또한 ‘색다른’ 오페라극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명작들을 상연하고 있습니다. 라이문트 극장(Raimund Theater)에서는 <내 고향은 오스트리아(I am from Austria)>를, 로나허 극장(Ronacher)에서는 <뱀파이어의 춤(Dance of Vampires)>과 <보디가드(Bodyguard)>(9월 말부

터 상연 예정)를 상연합니다. 매년 여름 밤 비엔나 시청 앞 광장은 무료 음악영화와 다양한 먹거리 등 방문객들이 즐길 거리가 풍성합니다. 특정 장르별 음악 축제들도 많습니다. 비엔나 블루스 스프링(Vienna Blues Spring)은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블루스 축제이며, 세계 음악 축제 비엔나 아프리카 데이즈(Vienna Africa Days)도 있습니다. 빈 임 로젠슈톨츠(Wien im Rosenstolz)의 연주회에서는 비엔나 전통 민요를 들을 수 있습니다. 클레즈머 페스티벌(KlezMore Festival)에서는 유대 민속 음악인 클레즈머(Klezmer)가 울려 퍼지고, 비엔나 재즈 플로어 페스티벌(Vienna Jazz Floor Festival)에서는 비엔나 소재 9개 클럽이 여는 백여 회의 콘서트가 재즈 음악 애호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보이스 매니아(Voice Mania)에서는 오로지 아카펠라 음악만을 들려주지요.

이런 비엔나의 음악적 분위기는 오늘날 음악가들의 창작 활동에 이상적인 토양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플렉스(Flex), 플럭(Fluc), 프라터자우나(Pratersauna), 그렐르 포렐르(Grelle Forelle) 같은 클럽들에서는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그리스 데브리(Ogris Debris), HVOB 등 비엔나 출신 뮤지션들의 일렉트로닉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빌더부흐(Bilderbuch), 반다(Wanda) 같은 밴드들은 독일어 팝 음악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비엔나 팝 페스트(Vienna Popfest)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최신 팝 음악을 카를스 광장(Karlsplatz)의 무대에 올립니다. 그 밖에 유럽 최대 규모의 무료 야외 파티인 도나우 섬 페스티벌(Danube Island Festival)에는 매년 약 3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며, 3일간 열리는 웨이브스 비엔나 클럽 페스티벌(Waves Vienna Club Festival)에서는 얼터너티브, 일렉트로닉, 록 공연이 100회 이상 열립니다.



TASTE VIENNA

비엔나 요리는 도시 이름을 따서 요리 이름이 지어졌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비엔나는 도시 안에 와인 산지가 있는 세계 유일의 대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엔나의 커피하우스는 인경 넘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엔나 사람들은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바이즐(Beisl)”이라 불리는 비엔나의 작은 식당들에서는 대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슈니첼, 굴라시, 간 튀김, 카이저 슈말른 같은 소박하면서도 맛 좋은 음식을 내놓지요. 이처럼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기에 우블(Ubl), 가우스트하우스 볼프(Gasthaus Wolf), 글라시스 바이즐(Glaxis Beisl) 같은 유명 식당은 물론이며 골목마다 있는 동네 술집 들에도 바이즐 문화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구겔후프(Gugelkuchen)와 자허토르테 같은 멋진 케이크와 페이스트리 등 달콤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초콜릿 판매점 소콜라트(Xocolat), 프루트(Fruth), 블뤼엔데스 콘펙트(Blüehendes Konfekt) 같은 후발주자들도 달콤한 맛으로 무장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비엔나에서 제일가는 미식의 전당으로는 실비오 니콜(Silvio Nickol), 콘스탄틴 필리포우스(Konstantin Filippou), 시민공원(Stadtpark)에 있는 슈타이어렉(Steirereck) 레스토랑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슈타이어렉은 ‘세계 50대 식당’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으로는 비엔나 특유의 풍미가 가득한 소시지가 있습니다. 무도회나 음악회, 오페라 공연을 즐기고 난 다음 간단히 요기하기에 좋지요.

이 외에도 비엔나에는 700헥타르 면적의 포도 밭에서 생산되는 뛰어난 와인을 음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맛집들에서는 비엔나 산 리슬링(Riesling) 와인, 바이스부르군더(Weissburgunder) 와인, 게미슈터 자츠(Gemischter Satz) 와인 등을 취급합니다. 이중에 특히 게미슈터 자츠는 최소 세 가지 품종의 포도를 함께 길러 압착한 비엔나 최고급 특제 와인으로 최근 DAC 품질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공식 선정된 비엔나 커피하우스는 언제나 편안하고 인경이 넘치는 공간입니다. 첸트랄(Central), 란트만(Landtmann), 뮤제움(Museum), 슈페를(Sperl), 데멜(Demel) 같은 전통 커피하우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와 맛 좋은 페이스트리, 세계 각지의 신문이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레오폴트(Leopold), 발타자르(Balthasar), 슈퍼센스(Supersense) 같은 신생 커피하우스들은 전통미와 더불어 세련된 멋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커피하우스 외에 제과점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LIVE VIENNA

비엔나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비엔나 사람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공공 연한 사실이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머서(Mercer) 사의 조사에서 비엔나가 2018년까지 9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이죠. 여러 국제기관들과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어찌해서 비엔나에 지사를 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엔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비엔나의 삶의 질이 높은 이유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녹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시가지에도 공원이 여러 곳 있지요. 예쁘게 조성된 꽃밭이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든 비엔나에서는 각양각색의 녹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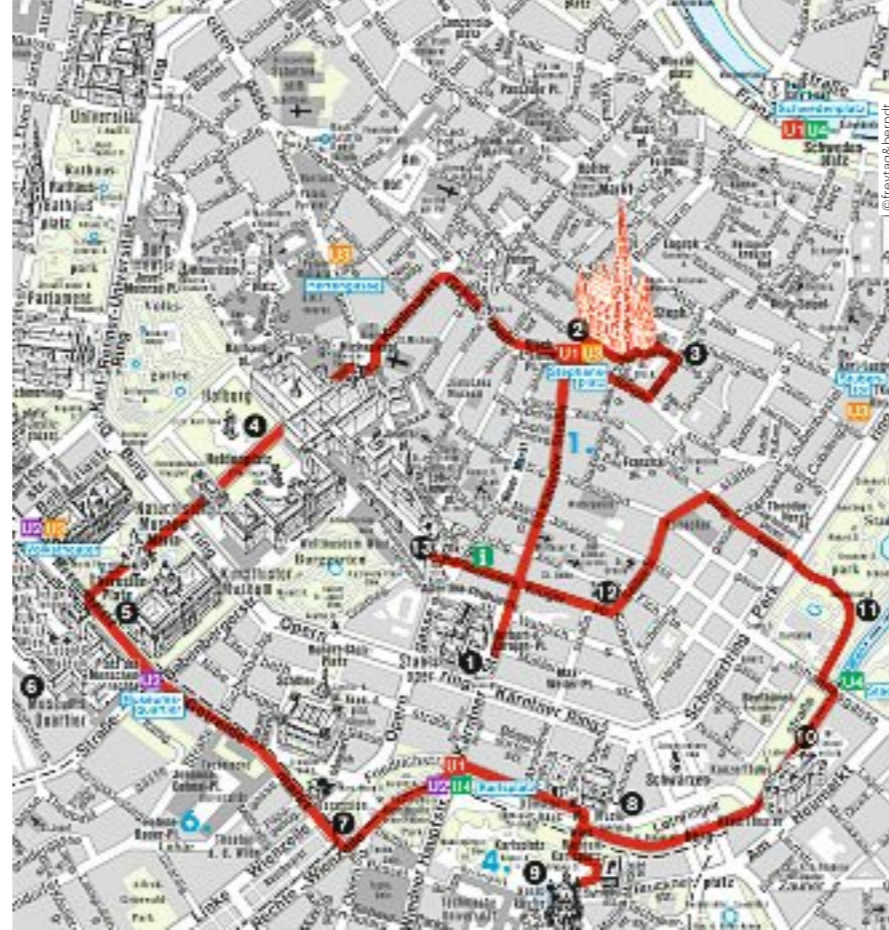
라인츠 가머 보호구역(Lainz Game Reserve)을 걸으면서 야생동물들과 마주치거나 신티룬 동물원(Schönbrunn Zoo)에서 이국적인 동물들을 만나 보세요. 비엔나에는 도나우 타워(Danube Tower), 칼렌베르크(Kahlenberg), 코벤츨(Cobenzl)과 여러 포도밭을 비롯 좋은 전망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또, 강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색다른 느낌이 들지요. 도나우 강에는 도나우 섬과 강의 옛 줄기에 조성된 넓은 유원지가 있어 여름철에 물놀이나 뱃놀이를 하기에 좋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나우 운하 둔치에는 선술집과 식당이 늘어서 있어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강을 따라가다 보면 6백만 평방미터의 녹지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공원 프라터(Prater)가 나옵니다.

비엔나는 도시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제기구가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국제연합(UN)의 공식 본부 4개 중 1개가 비엔나에 있으며 15개 산하 기구

도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석유수출기구(OPEC)와 국제원자력기구(IAEO)의 본부와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도 비엔나에 있습니다. 학생 인구가 196,400명에 이르는 비엔나는 독일어 사용 지역 중 가장 큰 대학 도시이기도 합니다.

비엔나의 국제적인 성격은 다각적인 시야와 문화적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 되는 LGBT 축제 유로프라이드 2019(EuroPride 2019)의 개최지로 비엔나가 선정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요. 이 축제에는 약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6월 15일에 들지요. 도나우 강에는 도나우 섬과 강의 옛 줄기에 조성된 넓은 유원지가 있어 여름철에 물놀이나 뱃놀이를 하기에 좋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나우 운하 둔치에는 선술집과 식당이 늘어서 있어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강을 따라가다 보면 6백만 평방미터의 녹지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공원 프라터(Prater)가 나옵니다.

LGBT.vienna.info



- 비엔나 도보 여행**
국립 오페라극장(Wiener Staatsoper)에서 출발하여
- (1) 케르너 거리(Kärntner Strasse)를 따라 슈테판 대성당(Stephansdom)으로 이동합니다 (2) 도중에 모차르트하우스 비엔나(Mozarthaus Vienna)를 꼭 둘러보세요.
 - (3) 다음으로는 그라벤(Graben)과 콜마르크트(Kohlmarkt)를 따라 왕궁(Imperial Palace)으로 이동합니다.
 - (4) 헬덴플라츠(Heldenplatz)를 가로지르면서 의사당과 시청 사 건물을 보고, 부르크토어(Burgtor)를 지나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과
 - (5) 박물관 지구(MuseumsQuartier)로 이동합니다.
 - (6) 이곳에는 중요한 박물관이 여러 있습니다. 게트라이데마르크트(Getreidemarkt)를 따라 황금색 입으로 장식된 둥근 지붕의
 - (7) 제체시온(Secession) 방면으로 내려가세요. 카를스 광장(Karlsplatz) 아래로 가다가 킨스틀러하우스(Künstlerhaus)를 지나면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보금자리인
 - (8) 무지크페라인(Musikverein)이 나옵니다. 맞은편에는 둥근 지붕의 바로크식 건축물
 - (9) 카를스 성당(Church of St. Charles)이 보이고, 옆에는 비엔나 박물관(Wien Museum Karlsplatz)이 있습니다. 로트링어 거리 (Lothringerstrasse)를 따라가다
 - (10) 콘체르트하우스(Konzerthaus)를 지나면
 - (11) 쿠어살롱(Kursalon)과 요한 슈트라우스 황금상이 있는 시민공원(Stadtpark)이 나옵니다. 링 거리(Ringstrasse)를 가로질러 자일러슈테테(Seilerstätte)를 따라
 - (12) 음악의 집(Haus der Musik)으로 이동하세요. 다시케르너 거리로 돌아와 관광안내소를 지나
 - (13) 알베르티나(Albertina)에 도착하면 도보 여행이 끝납니다.



#이제비엔나

www.vienna.info

Ringstrasse

WWW.VIENNA.INFO

온라인 호텔 예약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하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facebook.com/ViennaTouristBoard

www.facebook.com/LGBTVienna

www.twitter.com/ViennaInfoB2B

www.youtube.com/Vienna

www.instagram.com/viennatouristboard

유용한 정보

쇼핑

매장 운영시간은 대개 주중 (월요일 ~ 금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이며, 토요일은 오후 5 ~ 6시까지입니다. 일부 쇼핑센터는 주중 오후 8시 ~ 9시까지도 영업을 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주요 철도역, 공항, 박물관, 미술관 내 상점들만 문을 엽니다.

공휴일

1월 1일, 1월 6일, 부활절 월요일, 5월 1일, 예수승천일, 성령강림절 월요일, 성체축일, 8월 15일, 10월 26일(국경일), 11월 1일, 12월 8일 (대부분 상점 운영), 12월 25일~26일

비엔나 국제 공항

도심에서 16킬로미터 거리에 위치 도시 공항 열차(CAT)는 란트슈트라세/비엔나 미테(Landstrasse/Wien Mitte)역과 공항 사이를 30분마다 운행하며 이동 시간은 16분, 편도 요금은 11유로. 비엔나 미테역에서는 대다수 항공편의 탑승 수속(www.cityairporttrain.at)이 가능합니다. 급행열차 S7호선: 공항과 비엔나 미테역 사이 운행, 이동시간 25분, 요금은 4.10유로(시외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요금 1.70유로 + 비엔나 시내 요금 2.40유로). 레일젯(RJ): 공항과 비엔나 중앙역(Wien Hauptbahnhof) 사이 운행, 이동시간 15분, 요금은 4.10유로(시외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요금 1.70유로 + 비엔나 시내 요금 2.40유로). www.oebb.at

비엔나 공항선(Vienna Airport Lines) 운영 고속버스: 도심과 비엔나 중앙역, 비엔나 서역(Westbahnhof), 도나우센트룸(Donauzentrum)/비엔나 국제 센터(Vienna Int. Center), 공항 사이 운행, 이동시간 20~45분, 요금 8유로. www.viennaairportlines.at

에어라이너(Air-Liner, Blaguss사 운영): 비엔나 에어트베르크(Wien Erdberg)행, 편도 요금 5유로, 왕복 요금 9유로. www.air-liner.at

브라티슬라바 공항 (Bratislava airport)

비엔나 도심에서 65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브라티슬라바 공항에서 비엔나 국제공항, 비엔나 중앙역과 에어트베르크 버스터미널 사이 버스가 운행됩니다. 이동시간 약 1시간 15분. www.slovaklines.sk

관광

버스 여행 빅 버스 투어 (Big Bus Tours) 전화: +43-1-905 910 00 www.bigbustours.com/en/vienna
비엔나 관광 투어 (Sightseeing Tours) 전화: +43-1-712 46 83 www.viennasightseeing.at
레드 버스 시티 투어 (Red Bus City Tours) 전화: +43-1-512 40 30 www.redbuscitytours.at

비엔나 시티 카드
합리적인 금액의 비엔나 시티 카드로 비엔나를 속속들이 체험해 보세요. 비엔나 시티 카드는 24시간, 48시간, 72시간권이 있으며, 대중교통을 무료 이용 외에도 박물관부터 음식점에 이르는 관광명소 210여 곳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호텔, 알베르티나 광장(Albertinaplatz) 앞 관광 안내소(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7시), 비엔나 중앙역 내 관광안내소(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7시), 비엔나 공항 내 관광안내소(운영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 비너 리니엔(Wiener Linien)와 빅 버스(Big Bus) 판매소와 웹사이트(SHOP.VIENNA.INFO)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17유로부터입니다.

비엔나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7시, 무료 와이파이 제공
1., Albertinaplatz/Maysedegasse

비엔나 중앙역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7시, 오스트리아 연방철도(ÖBB) 안내소

비엔나 공항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오전 7시 ~ 오후 10시
입국장 좌측에 위치

비엔나 호텔 & 경보
전화 번호: +43-1-24 555 팩스 내선 번호: 666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오스트리아 여행 정보
www.austria.inf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feelaustriaKR

발행: 비엔나 관광청(1030 Vienna), 사진: ©WienTourismus/Peter Rigaud, Christian Stemper, Paul Bauer, 인쇄: 오스트리아 관광청 한국사무소

비엔나

지금 ◆영원히

비엔나 여행 후기 남겨주세요!
추천을 통해 사은품을 드립니다.

survey.vienna.info/trip

